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시기 자본주의적재생산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해주신 불멸의 업적

리 경 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적재생산문제를 맑스나 레닌이 전개한 재생산도식만 가지고서는 깊이있게 리해할수 없습니다.》(《김정일전집》 제2권 227페이지)

자본주의적재생산문제를 옳게 해명하는것은 자본주의의 력사적지위와 그 멸망의 합법칙성을 밝히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1960년대 당시 정치경제학과목에서는 자본주의적재생산문제를 맑스와 레닌의 재생산도식에 기초하여 취급하고있었으며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서는 자본주의적재생산문제 특히 현대제국주의에서 복잡하게 엉킨 재생산문제를 옳게 해명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깊이 통찰하시고 자본주의적재생산문제를 옳바로 해명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시기 자본주의적재생산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해주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선행고전가들의 리론의 제한성을 밝혀주신것이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사회적생산을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제Ⅰ부류와 소비재를 생산하는 제Ⅱ부류로 나누고 이 두 부류사이의 호상관계를 연구하면서 자본주의적재생산의 실현조건을 분석하였다. 그는 제Ⅰ부류의 생산물가운데서 가변자본의 가치와 잉여가치를 합한것이 제Ⅱ부류 생산물의 불변자본가치와 같을 때 자본주의적단순재생산이 이루어질수 있으며 이와는 달리 제Ⅰ부류의 생산물가운데서 가변자본의 가치와 잉여가치를 합한것이 제Ⅱ부류 생산물의 불변자본의 가치보다 클 때에는 자본주의적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적자본의 운동과정을 도식화한것은 맑스의 공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맑스는 자본주의적재생산에 관한 도식을 만들면서 자본의 유기적구성의 장성과 가격의 변동, 고정자본의 감가상각, 신용관계, 대외시장, 경제의 군사화를 비롯하여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다시말하여 맑스가 밝힌 자본주의적재생산도식에는 사회적자본의 복잡한 운동과정이 다 반영되어있지 못하다.

레닌은 《소위 시장문제에 대하여》에서 맑스의 리론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적확대재생산에 관한 새로운 도식을 내놓았다.

레닌은 자기의 저서에서 맑스의 재생산도식에 기술적진보와 그에 따르는 자본의 유기적구성의 장성요인을 첨가하여 생산수단생산의 우선적장성을 확대재생산의 법칙으로 정식화하였다.

레닌은 자본의 유기적구성의 장성을 고려하여 생산수단을 위한 생산수단생산이 가장 빨리 장성하고 그다음에는 소비재를 위한 생산수단생산이 장성하며 소비재의 생산이 가장 완만하게 발전한다는것을 새롭게 정식화함으로써 맑스의 재생산리론을 가일층 발전시키었다.

그러나 레닌도 맑스가 자본주의적재생산에 관한 도식을 만들면서 고려밖에 두었던 여러가지 요인들가운데서 자본의 유기적구성의 장성만을 고려하고 그밖의 요인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맑스와 레닌의 재생산리론은 주로 자본주의적재생산에서 사회총생산물의 실현조건을 밝히는데 돌려졌다. 사회적생산의 두 부류사이의 생산물실현조건을 정확히 해명하여야 자본주의적재생산의 모순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수 있다.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어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이 무정부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된다. 경제발전의 무정부성은 자본주의경제의 운동법칙이다. 경제가 무정부적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사이에 심각한 모순이 생기게 되며 이것이 자본주의적재생산의 모순으로 된다. 맑스와 레닌이 자본주의적재생산의 실현조건을 해명한것은 자본주의적재생산의 이러한 모순을 밝히기 위한것이였다.

그러나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재생산과정에 지난 시기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다.

그런것만큼 맑스나 레닌이 밝힌 자본주의적재생산리론을 가지고서는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재생산과정을 옳게 설명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시기 자본주의적재생산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해주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자본주의경기순환에서 일어난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하여 밝혀주신것이다.

자본주의경기순환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와 그 원인을 밝히는것은 자본주의적재생산의 모순을 옳게 해명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1960년대 당시 정치경제학과목에서는 현대제국주의에서 자본주의경기순환의 국면들이 어떤 요인에 의하여 서로 교체되며 경기순환의 길이가 무엇에 의하여 규정되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본주의재생산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경기순환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첫째로, 경기순환의 주기에서 변화가 생긴것이다.

현대제국주의에서는 경제위기가 더 자주 반복됨으로써 경기순환의 주기가 짧아지고있다.

독점자본주의사회에서 경기순환의 주기는 대체로 8-12년이였고 두차례의 세계대전사이의 20년동안에는 6-7년이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후에는 그것이 3-4년으로 단축되였다.

둘째로, 경기순환국면들의 호상관계에서 변화가 생긴것이다.

현대제국주의에서는 공황과 불경기국면들이 오래 지속되고 활기증진이나 호경기국면들이 희미해지면서 위기적인 상태가 만성화되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공황과 불경기국면에 비하여 활기증진이나 호경기국면이 확연히 구별되였다. 그러나 현대제국주의에서는 호경기국면을 거치지 못한채 공황과 불경기국면에 빠져들어가는것이 일반적현상으로 되고있다. 경기의 위기상태가 오래 지속되고있는 가운데 경기순환국면들이 엇갈리고 계선이 모호해지고있다.

셋째로, 경기지표들의 변동추세에서 변화가 생긴것이다.

상승의 국면에서 나타나던 경기지표들의 변화가 하강의 국면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그 반대의 현상도 나타나고있다. 활기증진과 호경기국면에서 나타나던 가격의 상승이 공황국면에서도 나타나며 공황과 불경기국면에서 나타나던 실업률의 장성과 인플레이가 만성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경기순환에서 일어난 변화의 중요한 원인이 우선 가격의 변동에 있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시장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자본주의경기순환의 변화에 직접 큰 작용을 미친다.

현대제국주의에서 가격상승은 경기순환의 국면에는 관계없이 일상적인 현상으로 되였다. 지난 시기에는 활기증진과 호경기국면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공황국면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였다. 그러나 현시대에 와서는 공황국면에서도 상품가격이 올라가고있다.

가격의 상승은 경기순환의 매 국면들의 호상관계에련쇄반응을 일으킨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지불능력있는 수요의 감소는 시장용량을 축소시키는데로 이어진다.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움직이는 시장경제에서 시장용량의 축소는 생산의 확대를 제한한다. 지난 시기에는 지불능력있는 수요가 고정된 상태에서 공황과 불경기로 하여 생산이 감퇴하면 상품판로가 다시 조성되어 생산이 확대되는 활기증진의 국면으로 넘어가는것이 상식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현시대에 와서는 생산이 축소된 공황과 불경기국면에서도 가격의 상승으로 시장용량이 축소됨으로써 다시금 판로를 개척하는것이 어렵게 되였다. 불경기에서 벗어나 생산이 확대되는 활기증진과 호경기국면으로 넘어갈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고있다. 공황과 불경기국면이 길어지고 활기증진과 호경기국면이 짧아지며 지어는 호경기국면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는 이와 관련되어있다. 이에 따라 경기순환의 매 국면들 사이의 차이는 희미해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경기순환에서 일어난 변화의 중요한 원인이 또한 경제의 군사화에 있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현대제국주의에서 경제의 군사화는 자본주의적재생산과정에 2중적인 작용을 한다.

경제의 군사화는 한편으로는 일시적으로나마 경제공황과 위기를 지연시키거나 그로부터 벗어날수 있게 한다. 경제의 군사화는 군수독점체들에게 국가로부터의 추가적인 수요를 조성한다. 이것은 군수공업과 그와 련관된 중공업을 자극하고 그것이 다른 부문들에 련쇄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일시 경기를 회복할수 있게 한다.

경제의 군사화는 다른편으로 보다 심각한 경제공황과 위기를 산생시킨다.

경제의 군사화는 경제부문구조를 기형화하고 부문들사이의 련계를 파탄시킨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 경제의 군사화는 공업과 농업 등의 민수생산을 희생시키면서 강행적으로 추진된다. 경제의 군사화가 다그쳐질수록 군수생산과 관련된 중공업부문들이 일면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민수생산부문이 위축되어 제대로 발전할수 없게 되며 경제부문구조의 기형성은 더욱 심화되게 된다.

경제의 군사화는 생산과 소비사이의 모순을 더 격화시킨다. 부르쵸아국가는 늘어나는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인민들에 대한 조세수탈과 지폐 및 국채를 략발한다. 경제의 군사

화에 따르는 수탈의 강화는 인민들의 실질수입과 구매력을 줄어들게 한다. 특히 전시나 준전시조건에서는 인민들의 소비를 제한하는 《긴축정책》까지 실시한다. 사회의 지불능력있는 수요와 소비는 극도로 억제되게 된다. 이것은 생산과 소비사이의 모순을 더욱더 커지게 하며 보다 파국적인 경제위기를 가져온다. 그리하여 경제의 군사화는 경기순환의 주기와 호경기와 활기증진의 국면의 길이를 짧게 하고 매 국면의 계선을 더욱더 희미해지게 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경기순환에서 일어난 변화의 중요한 원인이 또한 대외시장문제에 있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자본주의적재생산에서 대외시장문제를 밝히는것은 제국주의의 본질과 근본속성을 해명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대외시장이 자본주의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야 제국주의나라들의 해외팽창정책의 침략적, 약탈적성격과 제국주의렬강들사이의 더 많은 세력권과 상품시장을 획득하기 위한 싸움을 해명할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은 시장과 세력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팽창의 길로 나아갔다.

제국주의렬강들의 해외팽창정책은 사회주의의 영향력을 막고 세계제패를 실현해보려는 근본목적과 함께 더 많은 해외시장을 장악하여 상품의 판로를 개척하자는데도 목적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해외시장을 획득하는것은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였다. 그것은 시장문제가 더욱 첨예화되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 연료, 원료위기의 강화, 생산의 침체와 감퇴, 통화팽창, 침략과 전쟁정책의 강화는 제국주의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생활과 물질문화생활에서 그들의 처지를 더욱더 어렵게 하였다. 상품은 많이 생산되었으나 근로자들의 지불능력있는 수요의 감소로 하여 상품이 상점들에 체화되어있었다.

제국주의나라들의 해외시장문제도 더욱 첨예화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적착취와 약탈로 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이 상품시장과 자본투하자로서 한계에 부딪치게 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잉여상품을 실현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이 나라들에 대한 차관을 직접 줄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형편을 더욱 어렵게 하였을뿐아니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생산을 제한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시장문제는 더욱더 첨예화되고있으며 이것은 더 많은 판매시장과 세력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국주의렬강들사이의 무역전쟁을 강화함으로써 제국주의렬강들사이의 모순을 격화시키고 자본주의적경기순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자본주의적재생산문제에 대한 사상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